

7준 장수생 9급 합격 후기

중어중문학과 조○○ (2022. 02. 졸업)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에 합격하였고, 지금은 광양시청 국제협력팀에서 근무 중인 중어중문학과 학생입니다. 오랜 시간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었는데, 그동안 겪었던 실패 경험과 성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후배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기간 및 방법]

저는 17년도에 외무영사직 7급을 시작으로 공무원시험에 입문하였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9급 시험은 보지 않고 국가직 7급만 응시했지만 낙방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차에 출입국관리직 9급과 7급에 응시하였지만 또 다시 아쉽게 낙방하였습니다. 4년 차인 올해 역시 출입국관리직 9급과 7급을 응시할 계획으로 작년 10월부터 한능검 자격증을 따고 피셋공부와 전공과목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티오 발표에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출관 9급과 7급의 모집인원이 급감해서, 결국 일반행정으로 급하게 선회하였습니다. 그동안 선택과목으로 국제법과 행정법을 해 왔지만, 결국 행정학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직렬을 바꿨을 때 국가직 9급까지는 약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직 9급 일주일 전에 박문각 모의고사에서 행정학이 50점이 나오자 거의 반 포기 상태로 들어갔는데, 시험장에서 의외로 문제가 술술 풀렸고, 행정학 덕분에 국가직 9급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험문제가 쉬웠다는 점도 A급 주제 위주로 정리한 저에게는 행운으로 작용했지만, (박문각 공무원) 이경 선생님의 컴팩트한 기출문제집이 없었다면 얻기 어려운 결과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 6월의 지방직 시험도 안정적으로 응시하여 좋은 점수로 필기합격하였고, 결국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 준비 시 어려웠던 점]

저는 일반행정 9급을 준비한 건 올해 1월 중순부터였지만, 수험기간 자체는 4년차인

장수생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자존감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쩔 땐 수험생활이란게 나에게는 끝이 없는 까만 터널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수험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건 시험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당연한 거라 여기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9급 준비를 하면서도 항상 7급 준비를 염두하고 준비해 왔기에, 신경 쓸게 많은 점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 필기 합격 발표가 난 뒤에, 면접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바로 지방직 7급 필기 준비에 들어가서, 이 기간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면접 준비가 잘 안되어있고, 제대로 할 수도 없다는 걸 알지만, 미흡만큼은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다행히 둘 다 보통을 받았고,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관리법]

저는 의지력이 기본적으로 부족해서 생활스터디를 애용했습니다. 평범한 의지력의 소유자라면 생활스터디나 기상스터디를 귀찮더라도 꼭 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친목이 시작되는 것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적인 대화는 삼가시길 바랍니다. 또 저는 오전이 집중이 잘 되고, 오후부터는 공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오전에 공부시간을 많이 뺏으려고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오전에 4시간 씩은 뺏은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 10시간 공부를 한다면 본인이 가장 집중이 잘되는 시간대에 4시간 이상을 약한 과목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9시 이전까지 독서실에 착석해서 10~11시까지 공부를 하였고, 스톱워치에 10시간을 찍어야 귀가했습니다. 시험이 좀 남았을 때는 보통 8시간 정도 했고, 시험 직전에는 10시간이 거의 순공시간에 수렴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장소는 수험 초반엔 독서실에서 했으나,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스터디 카페가 저랑 더 잘 맞아서 이후로는 스카에서만 했습니다.

[과목별 학습 방법]

국어(국가직 85점, 지방직 95점) : 문법이 약해지는 추세이고, 독해가 강화되는 추세인 건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국어 비문학은 피셋 언어논리와 비교하면 난이도의 한계가 있고, 아무리 빨리 푸는 연습을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 규범은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시간을 단축할 여지가 비문학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문법, 규범을 잡겠다고 500페이지짜리 기본서를 보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양의 기본서를 사서 가볍게 인강으로 회독을 몇 번 돌린 후, 적은 문제를 꾸준히 풀어서 감을 유지하고, 막판에 모의고사를 하루 한 회 꼴로 풀면서 주요 문법사항들만 정리해서 외우면, 시험장에서 시간과 점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장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국가직 85점, 지방직 85점) : 영어공부를 단순화하지 못하면 단기합격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문법 4문제를 다 맞추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법에 그만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7급 준비를 병행하는 저로서는 힘들었습

니다. 차라리 4문제 중 2문제만 맞자라는 생각으로 양치기로 밀어붙였습니다. 문법강의를 따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영어 기본서를 사본 적도 없고, 기출문제집을 사본 적도 없습니다. 영어공부는 평소에는 이동기 단어장과 손재석 하프 모의고사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해당 시험의 5개년 기출 분석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책상에 앉으면 항상 단어암기와 하프모의고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시절 영어과외 알바도 했을 만큼 기본 베이스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공무원 단어암기는 처음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첫 1회독에 한 달 반은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리속에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외우는 양과 회독을 늘려나갔고, 시험 직전에는 오전에 2시간 정도만 투자하여 3,000개의 단어를 일주일 안에 회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워도 헛갈리는 단어들은 금방 잊어먹었습니다. 저는 영어의 경우 '85점 전략'을 썼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봤던 세 번의 9급 시험에서 모두 85점을 받았습니다. 85점 전략은 문법에서 두 문제 정도 틀리고, 어휘나 독해에서 한 문제만 틀려서 85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딱 이렇게 됐습니다. 문법은 항상 2개를 틀렸고, 독해나 어휘에서 하나 나가는 식이었습니다. 제 공부방법은 솔직히 90점 이상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80점 85점 정도를 효율적으로 받고 싶은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국가직 90점, 지방직 100점) : 한국사 공부 역시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는 기출문제보다는 기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도별 기출의 경우가 가볍게 두 번정도 회독하고 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본서는 되도록 500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시고, 이 기본서에 단권화시키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단권화할 때는 연도별 기출이나 전범위모의고사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한국사는 회독이 몇 번 되셨다면 국어, 영어와 달리 전범위 모의고사 푸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 아무래도 단순 암기과목이라 풀 때 머리를 덜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 한 세트씩 기출이든 모의고사든 가볍게 풀고 어렵거나 나올거같은 쟁점들 있으면 기본서에 옮겨 적는 식입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기본서에 기출쟁점들이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막판에는 미친 듯이 기본서만 외우는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사의 경우 온갖 지엽적인 암기 사항들이 많아서 평소에 열심히 외워봤자 금방 까먹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두문자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그것들 위주로 틈날 때마다 암기하고, 진짜 암기는 시험 막판에 몰아서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평소에 두문자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두문자만 기억하고, 내용이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 시험 막판에 몰아서 외우다 보면 다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행정법(국가직 85점, 지방직 85점) : 저는 행정법에 거의 시간 투자를 못 했습니다. 9급에서는 행정법이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 부족한 행정학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은 이제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므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든 기본강의를 들으셨다면, 이만복 선생님의 행정법 오엑스 특강으로 행정법 법리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국가직 7급에서 행정법 90점을 받았는데, 이 강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올해도 거의 준비를 못했고, 서브노트 위주로 보고 들어갔는데도 선방스러

운 점수를 받은 것은 작년에 열심히 들었던 이만복 선생님 강의의 위력이 남아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중심의 단순 암기는 저처럼 행정법 공부를 놔버리면 금방 증발해서 철퇴를 얻어맞을 수도 있지만, 법리이해 위주의 공부는 기본적 법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단순 암기사항도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학(국가직 90점, 지방직 80점) : 지방직 9급은 7급 공부 때문에 국가직 9급처럼 행정학에 많은 정성을 들이지는 못했고 결국 80점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점수가 좋지 못해서 국가직 때 3개월 만에 90점을 받은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1월 1일에 발표한 출판직 티오에 충격먹고 1월 중순에 일행으로 직렬을 변경했습니다. 행정학의 양이 방대해서 약 한 달 만에 기본강의 1회독을 하고 "머릿속에 뭐가 남은 것인가..." 라고 좌절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퇴로가 없었기에 국가직 9급 기출을 3개년 정도 머리에 때려 넣고 다시 기출문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막판까지 정리가 힘들었던 지방자치론 재정 파트나 정책론의 일부 부분, 재무론의 일부 부분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감각으로 맞추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표 점수는 80점이었으니까요. 실전에서는 다행히 헌법이나 행정법 때 공부했던 내용들도 답을 찍는 데 도움이 되었고, 90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행정학은 박문각 이경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절대 이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1,000페이지에 가까운 기출문제집을 힘들게 풀 때 500페이지 남짓의 기출문제집을 선택한 것이 올해 두 9급 시험에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에게 여유로운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500페이지짜리 교재를 선택할 것입니다. 적어도 9급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줄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